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3. 15. (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	담 당 자	· 사무관 박지윤, 주무관 주재형 · ☎ (02) 2131-2022, 2023	
	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공원사업부	담 당 자	· 부장 오홍택, 차장 임금섭 · ☎ (02) 6908-9080, 9087	
보 도 일 시		2021년 3월 1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5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미래의 용산공원, 가상현실로 미리 만나보세요!

- 15일부터 누리집서 VR 용산공원 서비스...오프라인 체험부스도 운영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와 한국토지주택공사(직무대행 장충모)는 언택트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PC 및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집에서 미래의 용산공원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「VR 용산공원」 서비스를 15일부터 개시한다.
 - 용산공원 조성계획(안)*을 토대로 제작 된 VR 용산공원은 벚꽃가로, 호수, 산마루길 및 초원 등, 공원의 주요지점 10개소에서 공원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360도 가상현실을 구현하고,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항공뷰 2개소를 제공한다.
- * '12년 국제공모 당선자인 West8·이로재·동일팀에서 “Healing: The Future Park”안을 제안,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말 최종 확정 예정
- VR 용산공원은 국민소통 누리집(www.yongsanparkstory.c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하며, 이번 달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다음 달 부터는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과 국립중앙박물관의 VR 체험존에서도 만날 수 있다.

- 장교숙소 5단지와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의 VR 체험존은 기존 전시물들과 연계되어 방문객들의 공원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도울 것으로 기대되며,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촌역 사이 지하연결통로에는 지난해 개최된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 우수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다.
- VR 체험존 방문객들은 방명록 및 용산공원에 보내는 엽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< VR 용산공원 주요 경관 >



▲ 어울림의 장



▲ 벚꽃가로



▲ 용산호수



▲ 산마루길



▲ 용산마루



▲ 산마루초원



▲ 위수감옥



▲ 만초가로



▲ 침엽수원

- 국토교통부는 국민 참여단*의 논의활동에 VR 용산공원을 적극 활용하고, 온라인 누리집과 VR 체험존을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폭 넓게 수렴하여 금년 말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.

*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 된 국민 참여단은 도보투어, 자유토론, 주제특강 등 다양한 논의활동을 거쳐 금년 상반기 용산공원 조성계획(안)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

- 한편, 지난 주말(3.13.~14.) 국민 참여단은 장교숙소 5단지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용산공원에 대한 첫 인상을 공유하고 활동포부를 다졌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많은 국민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용산공원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었다”면서 “국민들과 함께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VR 용산공원이 중요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추진기획단의 박지윤 사무관(☎ 02-2131-2022), 주재형 주무관(☎ 02-2131-20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